

고유가의 난국, 우리 스스로의 절약으로 이겨내야

- 산자부, 고유가에 대응한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 발표 -

- 산자부(장관: 이희범)는 금번 11월 8일(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에 대응한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유가가 여전히 '05.10월말 현재 배럴당 53달러를 호가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성수기인 겨울철을 맞아 범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엔 산자부가 발표한 '겨울철 에너지대책'은 크게
 - ① 에너지 절약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에너지절약 활동 전개,
 - ②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으로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강화,
 - ③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 및 관리,
 - ④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계획'의 지속 추진 등 4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절약 활동 전개
 -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13%를 차지하는 난방용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04년 겨울철 실천운동인「내복입기운동」과 병행하여, 금년에는 「난(暖) 2018」캠페인 시작
 - * 난(暖) 2018 운동 : 겨울철 실내건강온도인 18~20℃를 준수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자는 올바른 에너지소비문화 캠페인
 - 「Energy Week」(05.11.9~12), 에너지산업 순회전시회(대전, 대구, 일산 등 총3회) 및 에너지 절약 이동전시회(49회 기실시, 10회 추가실시 예정)를 통해 에너지 절약 마인드 제고
 - 제27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를 개최하여 산업체, 공공부문 등에서 에너지절약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05.11.10)
 - * 총 158명 포상(훈장 6, 포장 6, 대통령표창 15, 총리표창 15, 산자부장관표창 117)
 - 기술정보협력사업(ESP; Energy Saving thru Partnership)을 통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전파
 - * 8개 분과가 참여하는 통합 ESP워크샵 개최(경주, 11.2-3)
 - ②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참여 강화
 - 에너지다소비업종별 -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절약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제시(연말까지 25개로 확대)
 - * 현재까지 총 21개 사업자단체(약 646천개 사업장)가 참여에 동의, 그 중 17개는 자율절약계획 既 제출, 4개는 절약계획 마련중
 - * 숙박업계의 경우 숙박실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목욕업의 경우 더운물 배수시 발생하는 열회수 장치 설치, PC방의 경우 대기전력 절감,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자동차공회전 금지 등

- 제조업체에 대해 **자사 생산제품에 대한 효율개선 협약 추진**
 - 산업 및 가정용 보일러업체와의 **'제품효율개선 협약식'** (05.11월 예정)
- ③ 공공·민간부문 전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 공공부문은 **감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660개 기관에 대해 점검 및 민간부문은 **3차 자율적 에너지절약 실태점검 실시**('05.11월중)
- ④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05년 하반기' 3개년계획' 실무점검회의(05.11.3)를 개최, 그 결과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에 보고(05.12월중)
 - * 원단위 개선계획 보완·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05.11월중)
 - '행정복합도시 추진단' 내에 **에너지절약계획수립 TFT**(팀장: 산자부 자원정책국장 및 추진단 입지환경국장) 구성·운영
 - '05. 하반기' 121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V.A) 체결**(05. 11월중순)
 - 연간 2천 TOE 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해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 의무화 추진**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현황 : 규개위('05.3), 법제처 심의(05.6)를 거쳐 현재 국회 계류중
-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겨울철 에너지절약 운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실천을 직접 실천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이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임을 강조하였다.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02)2110-5423]

동절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대책 추진

- 산업자원부는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동절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 동 가스·전기안전 특별점검은 **동절기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가스분야**(인수기지, 배관, LPG 충전소등), **전기분야**(변전소, 공동구 및 전력구 등 다중이용시설), **송유관분야**(저유소, 송유관시설)에 대

해 '05.12.5부터 12.16까지 실시하고,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11개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여부, 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등에 대해 불시 점검 예정이며, 가스·전기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 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대형화재 취약 가스·전기·송유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상 미비점이 도출될 경우 적극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향후 해빙기 및 우기 등 취약시기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 될 때는 특별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절기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

■ 도로 등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전선이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처마끝이나 나뭇가지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겨울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합선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되어 화재사고는 물론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선을 교체하거나 벗겨진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준다.

■ 가정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선풍기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기제품에 연결된 전선이 발에 밟히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의 충격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하여 이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둔다.

■ 상가·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상가 진열대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된 상태로 점등되어 있으면 발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점검하여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요령

-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 ※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교체한다.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02)2110-5443]